



Wedding of the Ornithologist, 2015, Oil on canvas, 110 x 300cm

ANNA BEREZOVSKAYA (Russia, b.1986)

안나 베레조브스카야의 작품에 입문하기란, 어쩔 때는 불안하고 어쩔 때는 다정한, 마치 흥미롭고 드라마틱하게 엮힌 서술들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모순적인 남자들과 여자들, 새들과 동물들, 곤충들, 넘쳐흐르는 음식들과 풍부한 상징들로 가득 찬 그녀의 이야기들은 문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작가의 풍요롭고 도전적인 상상력을 엿 볼 수 있다. 삶의 모든 이야기들, 특히 어린 시절의 친숙함은 그녀의 최고의 작품들에 잘 드러나 있고 그녀의 창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그리지만 내가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기에 나의 아이디어들은 더욱더 흥미로워지고, 예리하고 또 성장해 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보람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열정들을 쏟고 싶었다. 내가 항상 사용하는 스타일과 테크닉을 사용했으나, 조금 더 강한 상징들과 나의 예술적 감각을 더 자각하면서 이를 이루었다.”

베레조브스카야는 시각적 시간 여행자이다. 그녀의 예술은 은유로 풍요롭지만 날카로운 역사적 지각 또한 존재한다. 초월적 인간과 동물을 상기시키는 상징들, 그리고 위트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유머는 마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감싸는 접착제 같은 존재이자, 은근하고 영리하게 그녀의 사회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수단이다. 아니, 누가 그녀의 익살스러운 생선들과 새들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